

주역의 變通的 易道, 그 逆說의
세계와 소통의 메커니즘
- 자아실현의 지속가능한 경계

김연재 (공주국립대학)

목차

I. 들어가는 말

II. 易의 상위개념과 세계의 실재

III. 變通의 하위개념과 지속가능한 경계

IV. 觀卦의 逆說과 소통의 메커니즘

V. 나오는 말

I. 들어가는 말

- 불확실한 현대사회와 그 불확정성의 원리

사회의 구성원들은 공감적으로 소통하고 구조적으로 조정하면서 의식적으로 공동체로서 통합해야 한다.

➔ **공동체의 의식과 소통의 메커니즘의 필요성**

- 주역의 變通的 易道:

소통, 조정, 통합 등의 지속가능한 방식에 관한 방법론적 발상에 착안.

• 세계의 실재를 투사한 총체적 지평: 易과 變通

易이 총체적인 시선으로서의 상위의 개념이라면

그 구체적 시선으로서의 하위의 개념은 變通이

다.

• 자기모순(self-contradiction)을 해소하는 모순

적 어법, 즉 逆說(paradox)이 있다.

• 美學: 다양성의 통일화와 통일성의 다양화

자아실현의 지속가능한 원리

II. 易의 상위개념과 세계의 실재

- 주역에서 세계의 실재(reality)는 하늘과 땅의 틀 속에서 삼라만상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일련의 끊임 없는 과정이다.
- 이는 자연계의 그물망에서 생명의 자생적 질서와 그 유기적 흐름을 특징으로 한다.
- 그러므로 주역은 우주 전체에 관한 한 폭의 圖像으로서 하늘과 땅의 복제판이자 자연계의 축소판이다.

- 세계의 실재에 대한 憂患意識을 크나큰 기조로 하는 易道의 강령은 하늘과 땅의 틀 속에서 삶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시선의 초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.
- 시선의 초점은 하늘과 땅의 구성, 구도 및 구조에 있다.
- 인간은 하늘과 땅의 구성적 틀에서 생명력의 관계망으로 이해하고
그 구도적 틀에서 생명력의 존재를 파악하고
그 구조적 틀에서 생명력의 가치를 터득하는 것이다

- 易은 세계의 실재를 직관적으로 투시하는 **총체적**인 **시선**에 해당한다.
- 삼라만상의 **스펙트럼**은 '생명의 창조력'을 끊임없이 구성하면서 '창조의 생명력'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. 이는 일종의 **逆說의 논법**이다
- 특히 卦象은 6爻 변화의 양상 속에서 **불확정성**을 지니기도 하지만 6효의 양상 속에 주관적 의식을 넘어서는 객관성을 담보하는 **확실성**도 지닌다.

- 逆說은 확실성의 객관적 법칙을 통해 불확정성의 주관적 심리적 작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방식이다.
- 불확정성과 확실성의 관계가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들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.
- 여기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방법론적 발상이 담겨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식과 지혜의 통합적 지평과 관련된다.

- 예를 들어, 64괘에서 태괘(泰卦)와 비괘(否卦)의 관계는 인간을 계도하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逆說의 논법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.
- 易의 시선에는 자체의 특성을 유지하려는 부분들과 이를 통합하려는 전체 사이에 대립과 통일, 모순과 조화, 상충과 해소, 갈등과 화해 등과 같은 일련의 역동적 과정이 함축된다.
- 이 공동체적 의식의 차원은 '다양성의 통일화'와 '통일성의 다양화'의 논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

III. 變通의 하위개념과 지속가능한 경계

- 주역에서 세계의 실재를 사회공학적 차원을 투사한 관점이 變通觀이다. 이는 인간이 변화의 세계와 창조적으로 소통하는 이중적 變奏의 성격을 지닌다.
- “역은 다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지속한다.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도와서 길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.”

-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窮-變-通-久의 과정으로 표현된다.
- 窮-變이 변화의 방식이라면 通-久는 안정의 방식이다.
- 窮變과 通久의 과정은 변화와 안정이 圓融一體가 되는 통일적 관계가 성립한다.
- 만물의 관계는 끊임없이 분화되고 통합되며 또한 끊임없이 통합되고 분화되는 과정이다.

- 變通의 용어는 주체와 객체의 의미있는 관계에서 變通과 通變으로 나누어진다.
- 變에서 通으로의 과정은 객관적 인식의 내용을 지닌 반면에, 通에서 變으로의 과정은 주관적 실천의 내용을 지닌다.
- 變通觀은 變通과 通變의 역동적 과정 속에서 인식과 실천의 통합적 경계, 즉 인식론적 실천력이 작동하는 가치론적 영역에 주목한 것이다.
- 전체는 다원적으로 분화하여 개체화되며 개체는 대립과 조화의 과정을 거쳐 전체로 통합된다.

- 逆說의 논법에서 보자면, 세계의 실재는 '안정의 지속성'을 끊임없이 유지하면서도 '지속의 안정성'을 끊임없이 계속한다.
- 이러한 존재의 變通과 가치의 通變의 관계에는 최종적으로 완성되거나 완결되어 완전히 고정된 균형의 상태란 있을 수가 없다.
- 심지어 이미 균형에 도달한 상태라는 것도 또 다른 새로운 단계로 변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중의 하나일 뿐이다.

• 이러한 내용은 자연환경 안에서 사회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른바 '지속가능한 발전 (Sustainable Development)'의 차원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.

• 이러한 逆說의 논법은 현대사회에서 '불확정성의 원리(Principle of Uncertainty)'와 일맥상통한다.

• 그것은 주관의 불확정성의 실질을 객관의 확실성의 법칙으로 수용한 결과이다.

•여기에서 불확정성과 확실성의 관계가 서로 모순
되지만 해소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逆說이다.

•이는 어떻게 대립과 모순의 불안정한 관계에서
통일과 조화의 안정적인 관계로,

더 나아가 대립과 통일, 모순과 조화의 불확정적
인 관계가 어떻게 유기적인 통합의 확정적 관계로
고양되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함축되어 있다.

IV. 觀卦의 逆說과 소통의 메카니즘

- 觀卦에서 觀의 조망은 자아와 타자의 소통의 방식으로 **인식론적 실천력의 방식**이 작동.
- 즉 인간이 대상을 인식하지만 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내면적 모습을 들여다보고 삶의 방식을 이해하여 주체와 객체의 괴리, 즉 대립, 갈등, 모순 등의 문제를 해소.

- 童觀 - 闕觀 - 觀我 - 觀國 - 觀其의 단계적 과정은 보편적 관점을 확보해가는 과정으로서 특정의 관점에서 시작하지 않는, 세계와 만물을 이해하는 입체적인 조망의 방법이다.
- '觀'의 시선은 대상세계에 관한 단순히 감각적 관찰의 활동만이 아니라 인간의 사유능력이 모두 발휘될 수 있는 다층적이고도 입체적인 차원의 활동이다.

- 관과의 '관'은 사물의 구조를 파악하는 특수한 관점도 아니며 사물의 배후에 있는 추상적인 관점도 아니며 일반적인 관점은 더더욱 아니다.
- 그것은 특정의 관점이 없는 관점 즉, 보편적 관점이다.
- 이러한 관점을 통해 특정의 대상을 올바르게 인식하면 할수록 스스로는 자아와 타자의 소통을 원활하게 된다.
- 즉 인간은 세계의 질서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면서도 세계를 창조적으로 개척하는 것이다.

- 여기에 소통의 메카니즘, 즉 '변화의 소통'과 '소통의 변화'의 逆說的 관계가 있다.
- '변화의 소통'은 인간이 실재의 세계 속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그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과정이다.
- 반면에 '소통의 변화'는 인간이 삶 속에서 세계의 실재를 스스로 나름대로 실현해가는 과정이다.

- 觀天下의 大觀的 관점은 세계의 통일적 질서를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격의 내면적 세계로 끌어들여 실천의 역량으로 발휘토록 한다.
- 이러한 원리는 逆說의 논법에 따르면 '목적의 방법화'이자 '방법의 목적화'로 특징화된다.
- 따라서 觀天下의 입체적 차원은 타자를 통해 자아를 성찰한다는 逆說的 차원이다.
- 인간의 인식의 활동은 물리적이고 인식적 차원을 넘어서 내면적 수양에 기반한 자아실현의 가치론적 경계로 고양된다.

- 變通的 易道에서 우리가 특정의 대상을 인식한다고 그에 따라 인간의 정당한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 아니다.
- 또한 특정의 행위를 실천하다고 해서 행위의 대상을 올바르게 인식한 것이 아니다.
- 그러므로 세계의 실재를 파악하는 과정은 變通의 과정으로서 盛德大業의 인식으로 이해된다.
- 삶의 실재를 실천하는 과정은 通變의 과정으로서 崇德廣業의 실천으로 파악된다.
- 易道는 인식과 실천의 통합적 차원에서 자아실현의 통합적 경계에 해당한다.

V. 나오는말

- 세계의 실재를 조망하는 데에 易의 총체적인 시선과 變通의 구체적 시선을 상위와 하위로 나누는 것은 세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실천의 구조적 관계에 기초한다
- 관과의 통찰적 시선에 담긴 逆說의 논법에는 삶의 경계의 영역이나 구분을 넘어서는 **통합적 경계**가 있으며
- 인간이 세계와 다각도로 갖는 **창조적 소통의 메카니즘**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아실현의 이정표를 만들어간다.

- 동아시아의 사상과 문화에서 소통의 메카니즘의 일환으로서 太極圖, 先天圖, 河洛圖 등의 도상학 (Iconology)의 영역이 있다.
- 오늘날 觀光學의 분야에서 觀光의 외부적 활동이라는 것도 자기계발의 취지와 관련된 창조적 소통을 위한 메카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.

- 變通的 易道에서 逆說의 논법은 현대적 의미에서 '다양성의 통일화'와 '통일성의 다양화'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.
- 여기에는 '생명의 창조력과 창조 의 생명력', '안정의 지속성과 지속의 안정성'의 논리가 적용된다.
- 특히 소통의 메카니즘은 '변화의 소통'과 '소통의 변화'의 逆說的 관계에 달려있다.

- 유가에서 '목적의 방법화'이자 '방법의 목적화'의 방식과 맞물려있는 자아실현의 원리로 확충될 수 있다.
-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의식의 세계에는 易과 變通의 통합적 관계를 통한 逆說의 美學이 자리잡고 있다.
- 여기에는 올바른 인식, 내면적 수양, 외면적 실천의 삼위 일체가 발현되는 자아실현의 궁극적 경계를 지향하는 것이며
- 사회공학의 현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합당한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다.

감 사 합 니 다